

특 집 / 인재불사-불교중흥의 초석이다

'인재불사 이렇게' 전문가 좌담

현대불교신문은 95년을 불교중흥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인재불사가 불교중흥의 초석'이라는 대전제 아래 한국불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구암 19일 오후 2시 본사 3층 회의실에서 각계의 권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담회에서는 승가와 재가의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중요성의 제고, 인재의 권리와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편집자주>



◇각성 스님 ◇송산 스님 ◇박선영 교수 ◇박관서 교수 ◇일연 스님

▲박선영교수=조계종의 개혁자 업도 무시할 수 없고,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어느새 21세기가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불교의 사회적·종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불교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가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만큼 각 나라마다 중대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한국은 이제 바야흐로 다종교 사회, 개방된 세계 속에서 불교의 자존과 역할은 교육을 통한 자기 강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전제 아래 좌담을 진행할까 합니다.

▲송산스님=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조계종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일대일로 교습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전문화, 다양화 속에서 전문강사스님을 초빙하

강원교육 한계 드러나

여 승려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재가자들의 교육 열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출가승들도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강원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교육방식과 전통교육방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합니다.

▲각성스님=현재의 강원교육제도가 구태의연하고 미비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재가자들의 교육열기와 정보 인식도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습니다. 승려들도 이러한 사회 흐름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에 알맞은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강원제도는 한문의 벽에 갇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교과내용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이제 정선된 교과와 내외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교과목에 대하여 구사론, 인명론, 천태학, 유식, 종관 등 종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관서교수=저는 재가자로서 재가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했던 바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므로 승가교육은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재가교육과 밀접하게 연

교육의 발 먼저 같아야 "진정한 개혁"

<참석자>

박선영교수(동대교육학과, 불교교육학)	각성 스님(3·1선원장, 강박)
송산 스님(중앙승가대 학장, 불교복지학)	일연 스님(동학사 주지·강주)
박관서교수(서강대, 재가 불교운동가)	현광 스님(옥스퍼드대 박사과정)

학식·수행·실천 견비해야...제도 체계화 시급

다변화 시대 이끌 엘리트 양성에 정재 투자를

결되어 있습니다. 재가교육이 정립되지 않으면 승단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승단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만 종교의 두 축은 수행과 중생구제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승단의 교육제도에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함과 동시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그들을 제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행의 절대적 가치에 평배 있는 한국불교 현실에서 중생구제는 번거로운 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고 승가의 두가지 목적이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선영교수=교육의 내용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현대교육과 수행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님들은 청정함과 향기 이외에 식견을 지닌 실력자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인들이 종교인들에게 갖는 기대가 매우 큰데 종교인들은 이것을 브

▲송산스님=승려교육은 강원교육과 선원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보기에는 비구니 교육제도가 그런대로 체계가 있어보입니다만 4년간의 강원교육으로는 태부족입니다. 바람직한 승려교육을 위해 기초교육 기간과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광스님=저는 한국불교의

남전발전 연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88년도에 스리랑카에 가서 팔리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인도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동양학부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스리랑카의 교육제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서구교육에 발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승려들은 어려서 출가하므로 절에서 일반 사회교육을 이수합니다. 중·고등과정을 거치면서 팔리어 경전도 공부하지요. 이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비교사적인 시험에 합격하면 불교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교육은 바탕이 균등하고 높아 세계불교권에서 남방불교학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육의 도량으로 삼으면서도 국학의 본산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현광=영국도 현재 교육문제로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열면서 21세기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21세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국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중심의 현대사회를 이끈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견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교육부자 때문입니다. 교수와 학생간에 일대일의 개인교수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불교의 교수방법이 매우 선진적인 영국의 제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많은 강사의 확보와 활발한 논쟁, 그리고 각 강원의 특색과 작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연=불교적 인재는 수행과 학식이 겸비되어야 하며, 특히 율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계율을 무시하고선 불교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언어 이전에 전달되는 인품의 향기는 지계와 수행에서 나옵니다. 지도자적 인격양성에 필요한 교육제도가 되려면 현재의 교육과정 보다 충분한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마친 이후 가까운 지역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중요합니다.

▲박관서=20세기는 과학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 시기이며, 21세기는 개체와 가치의 다양성이 중시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레아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사회문제에 둔감합니다. 대중들의 의견을 받지 않으려면 사회적 실천을 견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자를 위한 교육제도도 필요합니다. 간병만 열심히 해도 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는 당연

다가오는 세기에 한국불교가 제 위상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각오를 지닌채 다양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삼보장제가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각성=21세기에 대비한 교육제도를 중단적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재들을 수용할 특수학교를 세우는 일도 해야 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대중화 시대에

불교 성지 순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네팔 순례 14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 회장, 연 호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권 순례일정: 서울-방콕-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진타, 발라푸르 기원정사, 라지گیر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권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마감
-제2차 순례: 1월 15일~1월 28일(신청마감일: 1월 9일) ... 마감
-제3차 순례: 2월 19일~3월 4일(신청마감일: 2월 13일) ... 마감

권 동참금: ₩ 2,190,000 (신청금 포함, 여권인자대 별도)
권 신청금: ₩ 200,000

겨울 여행 특선

—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

태국(파타야) 5일 ₩ 685,000	12월 24,25,28,29,30,31 1월 7,8,14,15,21,22,28,29	미국 서부 버스 7일 ₩ 799,000	12월 23,30 1월 6,13,20,27
대만(화롄) 4일 ₩ 535,000	12월 25,30 1월 1,4,8,11,15,18,22,25,29	중남미 역사탐방 15일 ₩ 3,990,000	1월 5,19
마닐라 4일 ₩ 625,000	12월 24,31 1월 7,14,21,28	중남미 일주 20일 ₩ 4,980,000	12월 25 1월 8,29
홍콩·마카오 4일 ₩ 545,000	12월 23,30 1월 6,13,20,27	유럽 5개국 10일 ₩ 1,940,000	12월 29 1월 5,12,19,26
동남아 3국 5일 ₩ 699,000	12월 24,28,31 1월 4,7,11,14,18,21,25,28	유럽 6개국 11일 ₩ 2,140,000	12월 25 1월 1,8,15,22,29
홍콩(카와)·베트남·싱가포르 8일 ₩ 995,000	12월 25 1월 1,8,15,22,29	유럽 8개국 버스 13일 ₩ 2,140,000	12월 24,31 1월 7,14,21,28
방콕·싱가포르 6일 ₩ 795,000	12월 27,29 1월 3,5,10,12,17,19,24,28,31	모로코스페인 포르투갈 10일 ₩ 2,290,000	12월 29 1월 5,12,19,26
동경·하코네 4일 ₩ 945,000	12월 29 1월 5,12,19,26	사이판 4일 ₩ 645,000	12월 25,29 1월 1,5,8,12,15,19,22,26,29
일본 일주 5일 ₩ 1,235,000	12월 27 1월 3,10,17,24	괌 4일 ₩ 645,000	12월 25,29 1월 1,5,8,12,15,19,22,26,29
일본(후쿠시마 및 큐슈) 6일 ₩ 1,345,000	12월 27 1월 3,10,17,24,31	시드니·골드코스트 5일 ₩ 985,000	12월 25 1월 1,8,15,22,29
하와이 5일 ₩ 749,000	12월 24,28,29,31 1월 4,5,7,11,12,14,18,19,21,25	호주·뉴질랜드 8일 ₩ 1,545,000	12월 24,25,27,29,31 1월 1,3,5,7,8,10,12,14,15,17,19

* 성수기 요금 변동있습니다

여행 조건 특급 및 고급 호텔 사용, 10인 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국 5일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7,14,21,28 / 1/4,11,18,25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만 5일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8,15,22,29 / 1/5,12,19,26

국적 여행업 제817호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732-3200 (대)